美오바마 정부 셧다운 수모

메트로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제2124호 www.metroseoul.co.kr

철없는 경철이 엄마 김해숙

10년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국군은 건군 65주년이자 6·25전쟁 정전 60주년, 한·미 동맹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10년 만에 국군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65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계화 부대가 분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반성장 기업' 가면 쓴 포스코

'20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일부 허위 '탄로'…'퇴진 압박' 정준양 회장 또 악재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쪽같이 속이며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포스코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 지위를 박탈하고 혜택을 취소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실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으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입지 역시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해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우수협약기업 혜택 박탈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해 우수협약기업으로서 부여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했다.

포스코의 이번 평가 자료 허위 제출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내부자 고발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차례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동반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변호사 및 교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 자료의 일부가 허위임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 등급에 변동은 없으나(총점 100점 중 1.7점에 해당)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포스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3년 전인 지난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정기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준양 회장을 둘러싸고 2010년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인수 과정에서의 의혹, 계열사는 크게 늘어났으나 대부분이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꾸준히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정 회장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좁아지고 있다.

과연 정 회장이 이 같은 압박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을지,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정 회장의 석연찮은 의혹들이 명쾌하게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재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불꽃쇼 보고 패션쇼 보고…10월 여의도는 축제중

여의도의 10월이 축제로 물들고 있다. 5일 불꽃축제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세계 5대 패션축제 중 하나인 서울패션위크가 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선선한 가을 가족, 연인과 함께 여의도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봄에는 벚꽃 향기로 가득했던 여의도가 올가을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인다.

5일 63빌딩 앞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세계불꽃축제'가 펼쳐진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4개국이 참가.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불꽃쇼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당일 오후 5~10시에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양방향 전차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밀라노, 뉴욕, 파리, 런던에 이어 세계 5대 패션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패션위크 역시 패션피플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봄·여름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4 춘계 서울패션위크'는 18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IFC서울에서 열린다. IFC 오피스 빌딩 및 IFC몰 바로 앞의 여의도공원에 천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패션위크에서는 지춘희, 한송은, 명철호 등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만나볼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길 만한 행사도 여럿이다. 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는 '제4회 코리아컵 종이비행기대회'가 개최된다. 종이비행기를 소재로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곡예비행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박지원기자 pjw@

"할말 없는데…" 입 다문 정·황 기초연금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문으로 각각 곤혹을 치른 정홍원(위) 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1일 국회에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곽상도의 '채총장 찍기?'

국회 긴급현안 질문서 민주 신경민·박범계 의원 주장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채 전 총장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는 부도덕한 공직자의 사퇴와 청와대의 의도적인 '찍어내기'라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는 도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채 전 총장과 (혼외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군 어머니) 임모씨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며 "이래서 민주당이 이번 혼외아들 여부에 대해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여러 차례 "채 총장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한 정황을 제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 전 수석이 채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들고 8월 하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9월 5일 서울 강남 한 일식집에서 곽 전 수석과 전 인수위원,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만났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한 핵심 검사에게 전화해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곧 보도되면 채 총장은 1주일 이내 못 버티고 나갈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석기자 ansss10@metroseoul.co.kr

'은행 민영화' 국민적 신뢰 얻길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이 외형상으론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에는 모두 11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은행 예비 입찰에는 IBK기업은행, BS금융, DGB금융,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광주은행 입찰에는 신한금융지주, BS금융, DGB금융, JB금융, 광주·전남 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무려 7곳이 뛰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전이 대형 은행과 지방은행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몸값은 각각 1조2000억~1조3000억원,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매각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조차 안팎의 의혹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은행 수익성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그동안 31개 외국계 금융회사는 국내를 떠났거나 영업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더딘 민영화가 금융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영화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우리금융 매각을 모범 사례로 삼아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서울에 놀러 온 멕시코 스타일 홍타령 천안흥타령춤축제 2013에 참가하는 멕시코 무용단원들이 축제 홍보를 위해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혼모' 이유로 퇴학·전학 못 시킨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오다혜기자 ydh@

노인복지시설 알고보니 '횡령 천국'

200곳 예산운용 조사 결과

충북 청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을 빼돌려 유흥주점 술값·모텔비·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1억7000만여 원을 사용했다.

강원 강릉의 한 부부는 요양시설 2곳 운영비 2억9000만여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수당 등 용도로 횡령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4주간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시설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복지시설 대표는 정부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 운영 재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빚 탕감에 사용하거나 유흥비, 호화 생활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대상의 30%(60곳)는 시설 종사자들의 퇴직 적립금을 대표 명의의 개인 보장성 보험에 편칙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을 따져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승석기자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챙기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둥이 자녀 가족에게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우리카드사와 협력, 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막내 만 13세 이하) 다둥이 530가정에 최대 50만원의 '다둥이 행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포함) 이용 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가정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선정된 100가정에 50만원, 전체 대상 추첨에서 선택된 430가정에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실적이 높은 우수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 업체 중 중소기업 10개소에는 업체당 다둥이 사랑 지원금 2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리카드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1만8743매가 발급됐다. 문의 http://i.seoul.go.kr /김학리기자

본사인사
편집국 경제산업부장 김태균

뉴스 & 뉴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1977년 해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해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처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군본부 참모차장을 거쳐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재산은 본인 소유 5억3100만원을 포함해 8억4500만원을 신고했다.

유신 풍자극 연출 이재오 의원 37년만에 '무죄'

● 유신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8) 의원이 3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무효이고, 현행 헌법에서도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효성 겨눈 '추징의 칼날'

'MB 사돈그룹' 조석래 회장 등 수천억 탈세 혐의 검찰 본격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회장 등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상무 고모씨 등 핵심 인물 3명과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손실을 10여년 동안 매년 조금씩 메우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상무 고씨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관리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 3명은 이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앞서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주택과 콘도 2채 등을 구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행유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사장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실시한 대통령 특사에 포함됐다.

/김형운기자 yjw@metroseoul.co.kr

전국서 모인 호박들 "와! 대~박" 1일 오전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박과채소 형질전 우수지과 희귀박과채소 전시회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이 대형 호박과 형형색색 호박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프랑스 '안전보건 기술' 협력

지난달 교류협정 체결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프랑스 직업의료보험공단(CRAMIF) 장 클라우드 포리에 산업안전보건국장과 '산업 안전보건 분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기술 정보 교류 등 국제적 재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CRAMIF는 의료보험·의료보험과 함께 산재 예방 활동 및 보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건설안전위원회 의장기관이자 예방문화위원회 회원 기관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각각 교류 담당자를 두고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한 공동 연구, 세미나,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유리기자

백헌기(왼쪽)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프랑스 산업안전보건국장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한의학 명사 3인 초청특강

오늘 강서구민회관서 열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구민회관에서 한의학 명사 3인 초청 특강을 연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2일 오전 10시 '1일 2회 3분 척추 건강법', '삶의 질을 좌우하는 관절 건강법' 등을 주제로 동의보감 속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서울경희한의원 이병삼 원장은 8일 오후 7시30분 사상체질 분야와 부인과 질환 예방 치료법, 강남내동한의원 박희수 원장은 10일 오후 7시30분 침 치료법과 한의학 임상적 효과 사연 등을 각각 강연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2600-6455 /최유리기자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의 필수 고용·산재보험 혜택 및 가입절차

고용·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Q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면허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 초과)하면서 총 공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Q 고용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험의 혜택은?

1인 이상 고용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A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Q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A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가 있다.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Q 법정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A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봉석기자

이 싸움, 언제 끝날까 1일 경남 밀양시 [illegible] 765kV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송전탑 공사 재개 다시 뜨거운 밀양

한전, 4개월 만에 오늘 재개…주민들과 충돌 우려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2일 재개된다. 지역 주민과 갈등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전력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한전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대한 충돌을 피해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수립한 안전 수칙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인권을 담보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200여 명의 밀양 주민이 공사 재개에 반대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전은 부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변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해 경남과 경북지역에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경복궁역은 지금 '문화축제 역'

오늘 2색 행사 나란히 열려

서울 지하철에서 미술 작품 전시, 공연, 게임과 가수 2AM 팬사인회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일 3호선 경복궁역에서 2013 서울메트로 문화축제 개막식과 함께 제6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미술대전에서는 임미나의 2013년 5월 17일의 신촌, 이 대상을, 이태정의 '숲'과 이정돈의 '현대인의 삼자'가 각각 한국화와 서양화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복궁역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는 대상 수상작을 포함한 수상작 총 58점을 9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또 1~4호선 전동차에서 들을 수 있는 가수 2AM 팬사인회도 이날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illegible] 코믹 쇼, [illegible] 등 문화 공연과 지하철 빙고게임, 모형 만들기 등도 진행된다. /[illegible]기자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나누미 봉사단' 경산지역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봉사

독거노인의 한가위 이들 덕분에 온기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진우) 소속 나누미 봉사단(단장 김연상)은 한가위를 맞아 지난달 7일과 10일 이틀간 경북 경산지역 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독거 어르신 가정에 떡과 반찬, 음료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작됐다.

나누미 봉사단은 경산지역 내 재가지원센터, 요양원 기관 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는 봉사단이다. 봉사단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답게 어르신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절실한 부분을 파악해 봉사활동의 전문성을 더했다.

봉사단은 매월 1~2회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집 안 방 청소, 주방 정리, 화장실 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혈압 및 혈당 체크, 바퀴벌레 등 해충 퇴치를 위한 살충제 살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점검, 환경 개선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나누미봉사단이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경북 경산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준비한 선물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제공

나누미 봉사단 김연상 단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는데 봉사단을 통해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베이비붐 세대로 구성된 봉사단은 봉사단 23개 단원 117명으로 구성돼 활발히 활동 중이다. 봉사단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688-1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illegible]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률

탤런트 최진실 사망

인기 탤런트 최진실이 2008년 10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향년 40세. 최진실은 20세가 되던 1988년 삼성전자의 CF에 출연하면서 폭발적 주목을 받아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배우로 급성장 활동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으로부터 널리 사랑받았던 그녀는 연기에 또 한 인정받다 봤스타에서 [illegible] 국민배우의 반열에 올랐으나 이혼 등 불행한 가정사와 악성 루머에 인터넷 댓글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日 후쿠시마 제2원전 폐쇄 검토

사고 난 제1원전 인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 위치한 제2원전이 해체될 전망이다.

1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유출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제2원전의 폐쇄 계획을 검토 중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30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2원전의 처리 방침에 대해 "후쿠시마 현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전국의 다른 원전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도쿄전력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도쿄전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제2원전 운영을 결정할 전망이다.

후쿠시마 제2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쓰나미 높이가 제1원전에 비해 4m 가량 낮았고, 전력 일부가 공급된 덕분에 노심용융이 녹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제2원전 폐쇄 의견에 높아지고 있다. /[illegibl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 시한을 수시간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중 입을 꽉 다문 채 생각에 잠겨있다. /AP 연합뉴스

'셧다운' 케어 못한 오바마

美 '건보 개혁안' 협상 실패로 정부 폐쇄 … 17일 '디폴트 마지노선'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폐쇄되는 수모를 당했다.

연방공무원 절반인 80만~10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이 3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에 대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끝내 1일 오전 0시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21일간 정부가 문 닫은 후 17년 만이다.

◆공무원 120만명 '일시해고'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태에 놓였다. 우선 옐로스톤 등 전국의 국립공원이 폐쇄됐고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도 중단됐다.

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정상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보급의 3대 관심사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 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며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한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 문제까지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llegible] [illegible]@metroseoul.co.kr

"의자가 의사" 1일 도쿄 지바현에서 열린 IT 전시회 스타에서 시트가 건강관리 의자를 공개했다. 이 의자는 특수 센서를 이용해 체온, 심장박동, 혈압, 체중 등의 건강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5일까지 개최되는 시텍은 최첨단 전자, 정보통신 관련 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 IT 전시회다. /AFP 연합뉴스

2주 이상 지속땐 차·IT 등 대미 수출 타격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가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전반적인 재정 손실이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은 대체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대미 수출에 영향을 주는 통관 또는 농산물·식품 검역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도 필수 요원으로 지정돼 강제 무급 휴가 대상에서 빠져있다.

다만 장기화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2주일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동차·가전 등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은 "1995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셧다운이 21일간 지속되면 미국 성장률은 0.9~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illegible]

테러 발생 쇼핑몰 귀중품 턴 케냐군

케냐 쇼핑몰 테러 진압에 나섰던 케냐군이 보석, 휴대전화, 현금 등을 약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로비의 쇼핑몰 테러 사건이 잠정 수습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가게로 돌아온 상인들은 진열대 제품이나 귀중품들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테러 발생 직후 쇼핑몰 출입이 차단된 데다 테러 진압 후 지난 나흘간 이곳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는 케냐군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뿐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테러 당시 부상자 대피와 시체 수습 등 자원봉사를 한 파레시 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희생자인 어린 자말이 구급차로 옮겨질 때 한 병사가 시신의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는 케냐군은 지난 8월 발생한 나이로비 공항 대형 화재 때에도 이와 유사한 약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illegible]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 임박
BIG
Special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SALE
중국/대만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4일 27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황산 ★ 힐링여행 4일/5일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상해/항주/주가각 4일 2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5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만(야류,온천,화련) 4일 6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보라카이 4일/5일 3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2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3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4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규슈 온천여행 3일 4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마도 부산출발 2일/3일 1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www.hanatourist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1600-6963

market index <1일>

코스피	코스닥
1995.87 (+1.61)	530.55 (-4.54)

금리	환율
2.54 (+0.02)	1073.50 (+0.50)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년만에 0%대

체감물가와는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0%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999년 9월 0.8%로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기상 여건 호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덕분으로 분석된다. 신선식품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전달보다 2.2% 내렸다. 신선채소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떨어졌고 기타 신선식품(-14.5%), 신선 과실(-6.5%), 신선 어개(-0.9%)도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전세 가격은 1년 전보다 3.1%, 월세도 1.6% 각각 올랐다. 우유 가격도 10.3%나 상승했고 택시비(8.8%), 전기·수도·가스 요금(3.4%)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 상승률이 0%대로 진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뉴스 & 뉴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현장 면접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포통장 뿌리뽑기 나서

● 금융 당국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0월 중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은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계좌 주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을 말한다.

/김민지기자

주식형펀드 20거래일 유출

●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0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7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71억원이 이탈해 20거래일째 순유출이 지속됐다고 1일 밝혔다. 20거래일 동안 순유출 규모는 3조2065억원에 달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환매성 자금의 유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지기자

건설업 체감경기 다시 악화

● 회복세를 보이던 건설업계 체감경기가 1개월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1.2로 전달보다 2.8포인트 떨어져 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1일 밝혔다.

CBSI가 기준치인 100 아래면 현재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박선옥기자

30대 재벌 재무안정성 나빠졌다

빚 600조 육박 … 삼성·현대차 빼면 부채비율 상승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이 빌려 쓴 돈이 금융위기 직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 그룹의 작년 말 부채 총액은 574조9000억원 규모로 2007년 말 313조8000억원보다 83.2%, 261조1000억원 증가했다. 30대 그룹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30대 재벌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부채 비율은 2007년 말 95.3%에서 작년 말 88.7%로 낮아졌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구조가 불건전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체 부채 비율은 낮아졌지만 일부 우량 그룹을 제외하면 재무 안정성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28개 그룹만 따지면 부채 비율은 113.7%에서 115.4%로 오히려 상승했다.

부채 비율이 5년 전보다 높아져 재무 안정성이 악화된 그룹이 14곳에 달했다.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부채 비율 200% 이상 그룹도 동양(1231.7%), 한진(437.3%), 현대(404.1%), 금호아시아나(266.0%), 동부(259.4%), STX(256.9%) 등 6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는 동부, 두산, 한진그룹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평이 내놓은 그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비금융 부문 주력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메탈, 동부하이텍, 동부씨엔아이 등 주력 6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합산 차입금 규모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비중은 56.1%로 절반이 넘는다.

두산그룹은 주력 계열사의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투자, 한진그룹은 주력인 항공·해운의 저조한 영업실적이 재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상훈기자 park@metroseoul.co.kr

활랍스터가 9990원 1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활랍스터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9일까지 활랍스터를 9990원(1마리 500g 내외)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54분만에 5000명! 공유형 모기지 완판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폭주해 신청 첫날 1시간 만에 마감됐다.

우리은행은 1일 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기 시작한 지 54분 만에 신청 제한 인원 5000명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3분 만에 최종 수혜 대상자 규모인 3000명이 몰렸다고 우리은행 측은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상황실을 꾸렸다"며 "예상보다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79.4%(3970명)였고 지방 5대 광역시가 20.6%(1030가구)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276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대출 대상자 3000명을 정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1.5% 금리로 빌려주고, 매매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1~2% 금리로 빌려주고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다.

/김민지기자 mj@

동양시멘트·네트웍스도 법정관리

그룹해체 가속도 붙어

동양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동양네트웍스'와 그룹 계열사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룹 해체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1일 각각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전날 신청한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사로 늘어났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동안 자산을 매입해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며 어려움이 커졌다. 반면 동양시멘트는 동양네트웍스에 비해 비교적 자기 사업을 갖고 있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그룹 위기 타개를 위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사실상 양사 모두 금융권 여신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룹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룹 핵심 계열사로 부각되고 있는 동양파워와 동양증권의 향후 행보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양파워는 그룹 위기설 확산으로 제값에 팔기가 어려워지면서 잠시 매각 추진을 보류했으나 여전히 군침을 흘리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매각이 재추진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동양증권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 총 617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특별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이 관련 서류 및 전화 녹취 청취 등을 통해 설명 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당 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254-2600
독자센터	02)721-9785

2005년 5월 31일 창간 / 일간 서울특별시 가00088

보험업계 "베트남 시장 잡아라"

성장속도 매년 20%… 앞다퉈 현지 진출

보험업계가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보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성장 속도는 연간 16~20%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 더욱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순방한 이후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베트남에 현지 지점을 개설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모색 중이다. 지난번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현지 정부와 보증보험제도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시장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5년 내 10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도 베트남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이다.

그중에서도 한화생명은 국내 생보사 가운데 가장 먼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내 생보사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보험 시장에 진출, 단독으로 지분 100%를 출자해 해외 보험 영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점포 수는 진출 당시 5곳에서 현재 29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은 150여 명, 설계사 수는 8300여 명에 달한다. 한화생명은 오는 2015년까지 설계사 수를 1만 명까지 늘리는 한편 신규 계약 시장점유율을 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2002년 11월 현지 국영 재보험사인 비나리와 50대 50 합작법인인 삼성비나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으로 3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9개 손보사 중 6위를 기록 중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경력 15년 되야 신입연봉 2배

경력 15년은 쌓아야 신입 시절 연봉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잡코리아가 연봉 통계 서비스에 등록된 2012년 연봉 정보 199만2255건을 경력 연차와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1년차 직장인이 2847만원, 15년차가 570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신입 연봉의 두 배가 되는 데 15년이 걸린 셈이다.

3000만원대 연봉을 받으려면 5년차(3089만원)에 접어들어야 하고 4000만원대는 9년차(4189만원), 5000만원대는 11년차(5050만원), 7000만원대는 17년차(7146만원)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기자 kzz seo@

사람이야? 마네킹이야?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명품관 식품관, 고메이494에서 오픈 주년을 맞아 카루젤라주스 모델들이 와인을 권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카루젤라주는 '거짓, 꾸며', '위장'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로, 보는 이로 하여금 동상 혹은 마네킹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벤트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2세대 '쏘울' 외관 공개

● 기아차는 1일 다음달 출시 예정인 2세대 '쏘울'의 외관을 공개했다.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안개등을 캐릭터 라인으로 연결해 강인한 이미지를 더했다. 뒷유리는 트렁크 문축과 양옆의 콤비램프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이고 차봉은 차체와 색깔이 다른 캐노피 스타일을 적용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1세대 쏘울이 디자인 경영의 신호탄이었다면 2세대는 기아차의 대표 아이코닉 브랜드로 정착해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4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 오너 경영 기업 43곳과 계열사 1500여 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수가 경영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43개 기업 1519개 계열사가 이 규정에 해당되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속한다.

다만 공기업 집단 및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염윤희기자

中 갑부들 집사 고용 바람분다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영국이나 프랑스 상류층의 대시대에서 흔히 보던 집사들을 앞으로 중국 갑부의 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갑부들이 세련된 매너와 사교 기술을 가진 집사들을 너도나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집사학교는 중국에 분교까지 낸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인 집사 양성 교육기관인 국제집사아카데미(International Butler Academy·IBA)는 내년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 분교를 낼 예정이다.

로버트 워너커스 IBA 회장은 "중국에서는 매일 백만장자가 탄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집은 최고급 대리석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분교 개설 취지를 밝혔다.

2000년 네덜란드에 설립된 IBA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강도 높은 실습으로 '집사 양성 사관학교'로 불린다. 이 학교는 기존의 교수진과 함께 중국인 강사들을 채용, 8주 코스를 1년에 3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집 안을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 테이블 매너, 시가 저장법 등 다양한 서양 에티켓을 배우게 된다.

서양에서 집사는 '지는' 직업이다. 영국에서는 1930년대 3만 명에 달하던 집사가 현재는 1만 명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중국 등 동양에서 집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뜨는' 직업이다.

IBA에 따르면 집사의 평균 연봉은 5만~10만 달러(약 5300만~1억원) 수준이며, 별도로 특별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 '슈퍼 갑부'들은 거액의 연봉을 주고 서양인 집사를 직접 모셔 오기도 한다.

한중국제회의통역사 정종수(34)씨는 "고학력 서양인 집사를 고용하는 중국 갑부들이 꽤 있다"면서 "사업상 자주 만나는 외국 기업인을 집에 초대하거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어 "중국 갑부들이 사업상 중요한 협상을 할 경우 서양 집사에게 문화 차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오해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며 "서양 집사들은 단순한 집 관리인이라기보다 비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sunmi@ 사진출처=국제집사아카데미(International Butler Academy·IBA) 홈페이지

토요타 "제네시스 나와"

럭셔리카 공략 세단 '아발론' 내놔 · 수입차 국산차 전방위 추격

국산차가 전방위로 수입차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됐다. 토요타가 1일 플래그십 세단 '아발론'을 출시하면서다.

이에 따라 수입차는 소형에서부터 대형 세단까지 프리미엄·대중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국산차와 대등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국산차의 가장 큰 매력인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라인업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번에 나온 아발론은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에 출시된 4세대 모델로 트림중 최고급 사양인 V6 3.5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전량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 도입된다.

롤링 저항 저감 18인치 타이어 채택, 차량 경량화 등을 통해 복합 기

준 공인 연비는 동급 최고치인 9.8㎞/ℓ에 달한다. 가격은 4940만원. 제네시스의 경우 4300만~6300만원대다.

다만 시장에서의 판매를 놓고 보면 아발론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대형 세단의 주 고객층이 법인이나 개인 자산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브랜드와 동급 모델과 경쟁해야가 버겁다.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만 해도 ES, LS시리즈가 있다.

가격도 애매하다. 제네시스의 저가 트림보다 약간 높지만 주력 트림에 비해서는 싼 편이라 고객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은 주로 준중형 세단이다. 체급이 두 단계나 내려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발론의 등장으로 수입차 라인업이 사실상 완성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껏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징적 의미와 별개로 실속을 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굿바이 세균 '에어워셔 숨' 출시 모델들이 위닉스 에어워셔 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일 위닉스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에어워셔 신제품 13종을 출시했다. 에어워셔 숨은 일반 가습기 물 입자보다 5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수분을 뿜어내 더 넓은 공간에서 세균 걱정 없는 가습 기능을 제공한다. /위닉스 제공

노트북 살길은 초고가·고스펙

한국HP 'Z북14' 곧 선봬

스마트 기기 대중화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초고가 고사양'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HP는 1일 울트라북 워크스테이션 'Z북14'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고 밝혔다. 워크스테이션은 고성능 그래픽 등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 PC를 말한다.

Z북14는 이동이 잦은 외부에서도 고성능 제품을 원하는 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기존 워크스테이션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제품 두께는 21㎜, 무게는 1.62㎏으로 가볍다.

중앙처리장치(CPU)는 인텔의 4세대 하스웰 듀얼코어나 쿼드코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AMD의 차세대 그래픽 기능을 지원한다.

함께 공개한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인 Z북15와 Z북17은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선더볼트 포트와 대용 스크린에서 일관적인 색상을 보여주는 드림컬러 디스플레이 패널 옵션을 제공한다.

가격은 Z북14가 270만원이며, Z북15·17은 각각 320만원과 4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제품을 자기 작품 제작에 투입했다고 밝힌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의 케이트 스완보그 전략 책임자는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은 프레임 13만개, 디지털 파일 5억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

흠집 걱정없는 액정보호 필름 나왔다

슈피겐SGP '글라스tR 슬림' 출시 - 일반 필름 3배 강도

일반 필름보다 3배나 강도가 높아 웬만한 자극에도 흠집 걱정 없는 액정보호필름이 등장했다.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SGP(대표 김대영)는 이 같은 점점을 지닌 갤럭시노트3 액정보호 강화유리 '글라스tR 슬림'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글라스tR 슬림은 열쇠·동전 등 금속성 물체의 자극에도 흠집의 우려가 적을 만큼 강력한 표면 강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학 처리된 슬림한 강화유리 소재로 빛 투과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명함이 기존 보호필름보다 탁월하다. 국내 특허를 취득한 슈피겐SGP의 정밀한 가공 기술로 강화유리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굴곡 처리해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우수하다.

자가 점착 기술을 채택해 화면 위치에 맞춰 올려 놓고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화드고 자연스럽게 부착된다. 가격은 3만7500원.

김지영 슈피겐SGP 마케팅 팀장은 "갤럭시노트3의 경우 액정 위에 직접 S펜을 사용하는 일이 잦고 대화면 디스플레이 특성상 화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큰 만큼 강화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필름보다 오랜 기간 화면을 선명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현기자 lkh@

SSing metro

2013 서울메트로 문화축제

일　　시 : 2013년 10월 2일(수)
장　　소 : 서울메트로 미술관(1,2관), 3호선 경복궁역 내
참가 대상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프로그램 13:00 ~ 18:00

1관
- 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 아티스트 공연
- 홍보대사 팬사인회

2관
- 트릭아트전시
-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참가 시 경품제공
※ 행운권 추첨
예) 문화상품권 교통카드 등

서울메트로

공항철도 타고 트레킹 출발

코레일 추천 걷기 명소들

가족·연인과 오붓하게 떠나기 좋은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공항철도가 가을을 맞이 공항철도역 주변 트레킹 명소를 추천했다.

◆드림파크 꽃길 트레킹

공항철도 검암역 인근 드림파크 녹색바이오단지에서 6일까지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열린다.

수도권 최대 국화축제로 꼽힐 만큼 광활한 규모의 축제장에는 진한 국화 향이 진동하는 국화 군락지를 비롯해 코스모스 평원, 야생초화원, 억새밭, 메밀밭 등 21개 꽃밭 및 테마전시장이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축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장봉도 해안둘레길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는 최근 개설된 옹암해변~한들해변 해안둘레길이 트레킹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옹암선착장에서 내려 왼쪽 옹암해변 쪽으로 포장도로를 따라 10여 분 정도 걸어간 뒤 옹암해변에 도착해 한들해변까지 트레킹하는 4km 정도 거리로 약 2시간 소요된다. 모래사장길(1.94km)과 해안산책로(1.05km), 숲속산책길(0.96km) 등 잘 정비된 둘레길을 따라 갯벌 체험과 솔림 산책,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박지원기자

깔끔한 이진욱 男다른 면도 배우 이진욱이 매력적인 그루밍족으로 변신했다. 뷰티 브랜드 아베다는 1일 모델 이진욱과 함께 한 쉐이빙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이진욱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면도를 하고 있다. 이진욱은 "면도로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피부는 더욱 민감해지기 마련"이라며 "저자극 크림 보습 쉐이빙 제품으로 완벽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좋다"고 쉐이빙 팁을 전했다. /아베다 제공

정장 멋대로 캐주얼 점잖게

올가을 남성패션 '역발상 코디'로 스타일 살리기

'남자의 계절' 가을이다. 선선한 바람이 불자 셔츠와 아우터 등 환절기 아이템을 찾는 '멋남'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라이프스타일 패션 숍 원메이드가 가을 남성을 위한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번 시즌 남성복 트렌드의 특징은 캐주얼과 정장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장은 뻔하게, 캐주얼은 멋대로 입어왔다면 올가을엔 역발상이 필요하다. 정장은 과감한 포인트로 트렌디하게, 캐주얼은 은근한 포인트로 점잖게 코디하는 방식이다.

◆글렌체크 슈트·콤비 정장에도 도전

정장 패션은 '클래식함'이 진리다. 하지만 조금만 변화를 주면 보다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올가을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영국 신사를 대표하는 체크 슈트나 울 재킷 등에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체크 패턴 중에도 글렌체크는 클래식하면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세퍼릿 스타일'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콤비 라고도 불리는 세퍼릿 스티일은 상·하의를 한 벌로 입지 않고 믹스매치해 개성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레이, 네이비, 브라운 같은 무난한 색상의 재킷에 눈에 확 들어오는 블루 컬러 넥타이나 행커치프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된다.

◆소재 믹스·아웃포켓으로 멋내기

캐주얼 차림에 자주 입게 되는 카디건, 점퍼, 재킷 사파리는 화려한 컬러와 패턴보다는 소재에 변화를 준 제품이 한결 멋스럽다. 니트 소매가 달린 점퍼나 두툼한 소재의 사파리, 옷깃에 스웨이드 소재를 덧댄 재킷 등이 대표적이다.

안에 입는 셔츠나 니트의 경우도 복잡한 패턴보다는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 정도가 무난하다. 가을 유행 패턴으로 자리 잡은 체크무늬는 굵기와 색상을 달리해 두세 벌만 가지고 있어도 스타일링이 한결 쉬워진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아웃도어 재킷 공짜로 입어볼까

이젠벅 오프로드 아이더 온·오프 경품행사 줄이어

'나들이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아웃도어 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바람막이, 다운재킷 등 행사에 내걸은 경품도 풍성하다.

이젠벅은 다운재킷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 모두 4명을 뽑아 다운재킷을 무료로 주는 '플래시온 사진 이벤트'를 벌인다.

30일까지 이젠벅이 자체 개발한 일루미네이션 소재 다운재킷의 강력한 빛 반사 기능을 이용해 플래시를 켠 뒤 사진을 촬영해 브랜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eizenbuck.kr)에 올리면 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13일 페이스북에서 발표한다.

오프로드는 30일까지 20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 '플리스 점퍼'를 증정한다.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에 유용한 플리스 점퍼는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이너웨어로 활용하기 좋고 일상생활에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 2013 가을·겨울 신상품 구입 고객 대상이며 이벤트 참여는 1인 1차례로 한정된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고객이 직접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공모전을 연다.

27일까지 아이더 페이스북(www.facebook.com/eiderfriends)에서 광고 화보와 로고, 문구 등을 직접 조합해 응모하면 된다. 우수작에는 칸티나 바람막이 재킷(5명), 아이더 트래블 백(10명) 등을 경품으로 준다. /박지원기자

대상웰라이프 건강식품 중국 홈쇼핑에 진출

● 대상웰라이프는 국내 건강식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홈쇼핑에 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웰라이프는 최근 중국의 UGO 홈쇼핑에서 '발효 효소의 비밀'을 55분간 방송했으며 목표 수량인 700세트를 모두 판매했다. 나경호 본부장은 "2015년까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주류 '국가고객만족지수' 소주 부문 1위

● 롯데주류가 2013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위 기업 시상식에서 소주 부문 1위에 단독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주류는 세부조사 항목인 고객의 기대 수준, 인지 품질, 인지 가치, 고객충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G 초저타르 '더 원' 711억개비 판매 돌파

● KT&G는 자사의 초저타르 담배 '더 원'이 출시 10년 만에 누적 판매량 711억13만 개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길이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 150바퀴 도는 것과 같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총 6종이 출시된 더 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총 23종의 초저타르 궐련 담배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패턴 있는 타이츠 가을 누빈다

스트라이프는 슬림 착시 사선 무늬는 'O다리' 보완

올가을 여성들의 다리를 감싸줄 타이츠는 하나의 트렌드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패턴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즌 타이츠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과 중세 시대의 화려함 등 상반되는 자선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턴은 스트라이프, 도트, 사선, 기하학 꽃무늬 등으로 다양한 반면 색상은 따뜻한 느낌의 갈색, 와인, 그린 계열이 강세를 이룰 전망이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선 두께가 얇고 간격이 좁을수록 다리가 가늘어 보인다.

사선 패턴은 'O'자로 휜 다리의 모양을 잘 감추기 때문에 다리의 단점을 가리는 데 효과적이다. 도트 패턴은 귀여운 느낌의 작은 무늬가 유행인데, 도트 부분에만 튀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타이츠는 발랄한 느낌을 준다.

김승미 비비안 상품기획팀 과장은 "패턴 타이츠를 선택할 때는 옷이 화려하면 타이즈의 패턴은 단순한 것으로, 반대로 옷이 단순하면 좀 더 화려한 패턴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희망서울
2013 Seoul Wind Festival 해외초청공연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뉴시스 공감콘서트 '가을'
러시아 국립 윈드오케스트라 한국 초연
RED ARMY WIND ORCHESTRA
MUSIC DIRECTOR, SERGEI DURYGIN
지휘 세르게이 듀리긴
2013. 10. 6. SUN. 5 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Glinka Overture to the opera "Ruslan and Lyudmila"
Tchaikovsky Polonaise from the opera "Eugene Onegin"
Strauss Couplets of Adele from the operetta "Die Fledermaus"
Gounod "Juliet's Waltz" from the opera "Romeo and Juliet"
Fantasy on Russian folk themes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은 예술가들이었고, 그 중 몇 명은 거장이었다.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A. Khachaturian
티켓 | VIP 10만원 | R 7만원 | S 5만원 | A 3만원 | B 2만원
예매·문의 | 세종 인포샵 02)399-1114 인터파크 1544-1555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할인정보 | 서울윈드페스티벌 패키지 티켓 50%(R석에 한함), 10월 시민예술제 공연티켓 소지자 30%, 세종문화회관 유료회원 프리미엄 30%, 골드 20%, 청소년(만 7~24세 동반 1인) S·A석 30%, B석 50%, 단체 20인 이상 20%, 30인 이상 30%
주최 | 세종문화회관 NEWSis 주관 | 세종문화회관

뚜껑 열면 테이블 세팅 끝! 주방용품 브랜드 월드키친이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더 베일리 하우스에서 프리미엄 스토리지 브랜드 코렐 스냅웨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렐 스냅웨어는 음식을 보관하는 동시에 테이블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잠금 뚜껑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감기 잡는 '하얀 삼총사'

대파 뿌리·배·더덕 등 식재료 활용한 처방전

감기약 먹으면 7일, 안 먹어도 일주일 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에 나오는 얘기다.

감기약은 주로 콧물을 멈추게 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가래를 삭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진해거담제 등이 있다. 이런 감기약들은 감기를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감기약들은 졸음과 현기증을 유발하거나 소화장애, 중독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 지도에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가정에서도 쉽게 약재를 구해 감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가정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는 파뿌리다. 한의학에서 '총백'이라고 불리는 파뿌리는 그 중에서도 흰 부분이 약재로 사용된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며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해노 곤란, 설사, 고열, 발한, 복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대파의 하얀 부분에서 뿌리까지의 길이가 대략 10cm 정도 되는 것을 2~3개 준비해 300cc 정도의 물에 넣고 약 30분간 약한 불로 끓여준다. 이렇게 한 번 끓인 후 복용하면 파의 아린 맛도 없어지고 오히려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복용은 1회 20~30cc면 적당하다.

배도 약이 된다. 한의학에서 배는 만성 기침과 가래 해소에 효과적이며 몸의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는 감기에는 배 반토막(200g)과 무 200g을 즙을 내 복용하면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다만 배는 성질이 차가워 많이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덕도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효가 가장 뛰어난 더덕은 인삼이나 홍삼만큼 약효가 뛰어나며 사포닌 성분과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위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생더덕을 꿀에 발라 구워 먹거나 고추장 양념 구이로 먹어도 되고, 생채로 얇게 해 먹어도 된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세척한 다음 반으로 쪼개 3~5cm 정도로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방섭 서울시 북부병원 한방과장은 "단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은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수지 맞는 쇼핑'

3~8일 '해피세일' 행사 진행 불륨버터 등 최대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3일부터 6일간 전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수지의 해피 세일'을 기획한다고 1일 밝혔다.

3일부터 8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출시한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의 10만 개 판매를 기념해 소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랜드 모델 수지가 광고하는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0만 개를 넘어서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이번 행사기간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당제품 구매 시 지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는 촉촉한 윤기 보습과 탱탱한 탄력 효과를 주는 주름 개선 기능성 페이셜 버터로 최근 여성들이 원하는 볼륨 있는 뺨과 날렵한 턱선으로 이루어진 '하트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성분인 천연 식물성 망고씨앗 버터는 망고나무의 탁월한 영양 성분을 응축한 버터로 함유해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또 '하트씨앗'이라 불리는 풍선초씨앗 성분을 함유, 주요 성분인 올레산, 리놀레산 등이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준다.

이 밖에 아이크림 전 품목과 마스크 시트 전 품목,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라인인 '명한 미인도 률싱고' 등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채지원기자

달라진 하프클럽…원하는 상품 한눈에

리뉴얼 기념 혜택 풍성

온라인 쇼핑몰 '하프클럽'이 사이트 전면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 쇼핑 편의를 고려해 '펼침 메뉴 기능', '내 정보 수시 확인 기능', '추천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카테고리별 기획전 소식과 전체 아이템을 한눈에 보기 쉽게 펼쳐 보여줘 원하는 아이템으로 이동하기 쉬워졌다. 또 메뉴 이동 시에도 항상 위시리스트·장바구니 내 정보 등의 쇼핑 현황은 노출돼 제품의 품절 상태 및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품마다 다른 고객들이 구매한 횟수나 상품과 어울리는 추천 코디를 제안해줘 스마트한 쇼핑 역시 가능해졌다.

◆6일까지 이벤트 풍풍

하프클럽은 리뉴얼을 기념해 24시간 꺼지지 않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6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남녀 브랜드 의류를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고, 오후 1시부터 3만·4만·5만원 이상 제품에 한해 선착순 총 1300명에게 20·30·50% 슈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온 타임' 이벤트에서는 인기 브랜드 미니멈, 지오지아, 인디안 등의 남녀 의류 제품을 9800~3만9800원의 균일가로 판매하고, 매일 오후 6시에 열리는 '1000원 초특가숍'에서는 아니베에프(Anivee f)의 10만원대 여성 재킷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

올빼미 쇼핑족을 위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게릴라 쿠폰'을 증정하고, 바로 하프클럽에 접속해 구매할 경우 추가 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24시간 다양하게 쏟아지는 구매 혜택을 SNS(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를 통해 널리 소문내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던킨도너츠 기프티콘을 선물로 준다.

/채지원기자

이대병원 '간질환 건강강좌'

15일 오후 2시 간센터서

이대목동병원 간센터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간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와 대한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건강 강좌는 한국의 간질환 치료 및 사회 환경을 점검해 보고 일반인들의 간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만성간질환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과 이에 대한 치료'를 주제로 한 이번 건강강좌는 문일환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간의 모양과 하는 일(홍근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 ▲간경화는 불치병인가(유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장) ▲간암 극복하기(김태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 등의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 참석자 전원에게 대한간학회가 발간한 '간질환 바로 알기' 소책자를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워너시컴 검진권과 복부초음파 촬영권을 제공한다. 문의 02)2650-2503

/채지원기자

스타키 '노인의 날' 기념 2000만원 상당 보청기 기증

보청기 브랜드 스타키코리아가 '노인의 날'을 기념해 20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증하고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한다.

스타키코리아는 2일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한국노년복지연합이 주최하는 '2013 노년 건강걷기대회 및 가족문화축제'에 참가해 20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증하고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인의 청력 손실 유형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개발된 100% 디지털 보청기를 마련했다. 또한 대회 기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스타키코리아 부스에서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신의 청력을 진단하고 본인에게 꼭 맞는 청력 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는 "노인분들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465-0999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행복 성장해간다

인간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사소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삶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한 과정이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비밀'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통해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것도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말이다.

책은 75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인간의 성장과 행복을 연구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하버드 그랜트 연구'의 결과물을 담았다.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됐는데 268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대학 시절부터 노년까지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분석했다. 미국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의 총책임자로 42년 넘게 이 연구를 이끌었다.

저자는 "인간은 평생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유전적·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인간의 변화 의지, 성장의 방향이 행복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행복의 비밀

조지 베일런트/21세기 북스

'하버드 그랜트 연구'의 75년 추적 결과물 담아

예를 들어 성장기가 지난 성인도 계속해서 발달하며 성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중년기를 보냈더라도 노년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또 행복한 결혼생활은 칠십대 이후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을 주고, 80세 이후의 신체적 노화는 유전적 요인보다 50세 이전에 형성된 습관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

결국 풍요롭고 건강한 삶은 유전적 영향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려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매우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도, 불행한 운을 타고난 사람도 살다 보면 늘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처하게 만드는 조건도 바뀐다. 타고난 행운은 인생에 잠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결국 행복한 인생의 비밀 열쇠는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시

눈사람 여관 이병률/문학과지성사

산문집 '끌림'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와 '끌림'으로 사랑받아온 이병률 시인의 네 번째 시집. 혼자 조용히 마음의 바다을 들여다보고 곳곳 구석구석을 짚어보는 60여 편의 시가 실렸다. 시인 특유의 '바닥 없는 슬픔'과 '깊고 조용한 용서' 생각의 안쪽에 새겨져 있는 질박한 이야기가 여전히 묻어난다.

여행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다 미얀마 저장섭/뱅크공간

미얀마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역사·종교·민족·미술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미얀마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역 시대·성격별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7년간 미얀마에 관련된 연구서를 수집하고 5차례 현장을 답사했다. 직접 찍은 사진도 함께 담았다.

사회 일반

에파트 게임 백예선/호미나스트

환희와 질망, 환멸과 냄새로 점철됐던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급격히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정히 들여다본다. 저자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평적 픽션'이라는 실험적 글쓰기 전략을 사용한다.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벌게 될까 필립 브라운 외/개마고원

영국 출신 노동시장 전문가들인 저자들은 현재의 국제 노동 시장의 모습을 '글로벌 옥션'이라고 칭한다. 마치 최저가 경매처럼 가장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관리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수잔 M. 와인생크/위키미디어

동등심리학자인 저자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7가지를 분석했다. 저자는 ▲일 추진하게 하려면 선택의 폭을 줄여라 ▲5 리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싶다면 돈에 대해 언급하라 ▲보상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처음에는 꾸준히 보상한 다음 가끔씩 보상의 내용을 바꿔라 등을 조언한다.

소설

태양컴퍼스 손소설/북인

표제작은 연어나 철새가 태양의 위치를 기초로 방향을 잡는 본능을 가진 것처럼 인간 역시 욕망 혹은 사랑을 지표로 삼는 본능을 가졌음을 역설한다. 작가가 8년 만에 낸 소설집으로 '음파', '신조 탄시의 소설론', '평가의 예술론' 등 모두 9편의 단편이 실렸다.

천국에서 김사과/창비

주인공 '케이'는 뉴욕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내며 세련되고 근사한 세계 속에서 고양감에 젖어 반짝이는 여름 한철을 보낸다. 그리고 돌아온 서울에서 그녀는 시시한 현실의 삶으로 방황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괜찮은 것을 경멸하고 세련된 취향을 선언하려 해도 자신이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케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다.

경제

김원장 기자의 앵그리 경제학 김원장/책보

일자리 없는 20대, 결혼을 포기하는 30대, 하우스푸어 40대. 우리 경제의 외형은 날로 커지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각종 포기를 강요받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대한민국의 99%가 살아가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제의 함정과 경제 권력들의 담합을 김원장 기자가 날날이 파헤친다.

에세이

온기 마음이 머무는 마사다 치로/홍익출판사

우리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마사다 지로의 에세이와 대담진 인터뷰 그리고 소설 등 그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함축적인 힘을 지닌 이야기들은 '진심은 전해진다'는 말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기가 된다.

책 속 한 컷

꿈 같은 휴식

몽글몽글 탐스럽게 피어오른 구름 위에 남녀가 마주 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이 동화 같은 그림의 제목은 '구름 위에서 한잔'이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당신도 나도. / 우리 자주는 아니어도/이렇게 맑은 날 /구름 위에서 가끔/한잔씩 합시다 /차도 좋고 술이면 더 좋고." 지면에 떠 있듯 담은 그림 옆에 쓰여진 따스한 글귀는 팍팍한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숨 고르기 할 여유를 준다. - 오늘 수고했어요 (이수동/아트북스) -

/박지원기자

쪼잔해서, 더 인간적인 우리 자화상

화제의 책

이 인간이 정말 성석제/문학동네

이야기꾼 성석제가 조금은 부족하고 더러는 억울하고,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년기와 첫사랑처럼 오래된 기억은 천억 개가 넘는 뇌세포 가운데서도 깊숙한 데 숨어있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새 소설집 '이 인간이 정말'엔 저자의 기억으로 포장된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대단한 사건이라도 비범함을 지닌 영웅이나 누군가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악인은 없다. 사소하고 미미하지만 그래서 평범한 인간의 맛이 더욱 진하게 묻어난다.

단순 접촉 사고에서 시작된 자와 보험에 얽힌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첫 이야기 '론도'와 자 일행이 우연히 '박'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약간 흥미로우면서도 조금 불편해진 그들의 카오스 이펙가를 담은 '남방' 등은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다.

저자의 따뜻한 이야기에서 '세상 사는 형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최세목기자

깡철이 소원

환갑을 바라보는 중견 연기자의 주·조연작이 같은 날 나란히 개봉되기는 배우층이 얇은 국내에서도 비교적 드문 경우다. 김해숙(58)은 2일 공개될 '깡철이'와 '소원'에서 철없는 엄마와 차가운 듯 따뜻한 성폭력 아동상담소장 역을 각각 맡아 정반대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오간다. 자식이다 다름없는 두 편의 출연작이 흥행 다툼을 벌이게 된 것과 관련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무슨 운명의 장난이람. 어휴…"라며 안타까워했다.

"철없는 엄마 매력적…단박에 OK"

영화 '깡철이' **김해숙**

▶상투성 느끼면 스스로 NG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출연 분량이 많고 비중이 높다 보니 '깡철이'의 흥행 여부에 신경이 더 쓰이는 듯했다.

이제껏 수 많은 엄마 캐릭터를 연기했으나 '깡철이'의 순이씨는 출연 제의를 단숨에 받아들일 만큼 매력적이었다. "극중 순이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아들 강철(유아인)에 악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죠. 세상에는 많은 엄마가 있지만 모두 다르잖아요? 평상 그랬듯이 의상부터 말투까지 모두 바꿔 출발했지만 쉬운 작업은 역시나 아니었어요."

치매로 조금씩 망가져가는 엄마를 연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적은 상투성이었다. '내가 진짜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변해갈까'란 마음을 품고 현실적으로 극중 인물에 접근했다. 조금이라도 상투성이 느껴질라치면 스스로 NG를 외쳤을 정도다.

육체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웬만한 빌딩 높이의 굴뚝을 올라가는 장면에선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강철과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에선 교통사고의 두려움을 견뎌내야 했다. "폐소공포증과 고소공포증이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물론 스키 리프트도 못 타요. 그런데 카메라만 돌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 팔자를 타고나긴 했나봐요. 하하하."

카메라만 돌면 고소공포증도 싹~
일 쉬면 병나요…내 안에 소녀감성
국민엄마 좋지만 팜므파탈 더 좋아

▶극중 아들 키우며 대리만족

지금까지 영화에서 신하균·원빈·김래원 등 여러 톱배 남자 연기자들과 모자(母子)로 만났다. 이 중 유아인은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러나 아주 의젓하고 든든해 마치 큰아들같았다고 했다. 말수는 많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뒤에서 꼭 안아주는 등 진짜 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굴었다.

실생활에서의 김해숙은 두 딸을 키우는 '딸딸이' 엄마다. 한 번도 아들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지만, 영화를 찍고 나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들 아들 하는구나' 싶다. "극중에서나마 아들을 키우며 대리만족해요. 게다가 제가 만난 아들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웃음) 그렇다고 딸들한테 불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들과 딸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아들은 키울 때 소소한 재미는 없겠지만 듬직할 것 같더라고요."

▶정통 사극 출연하고 싶어

누구는 '늦늦은 전성기'라고 한다. 박찬욱·최동훈 감독 같은 유명 감독들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서일 것이다.

한참 어린 감독들이 쉬지 않고 찾는 이유를 본인 입으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최 감독은 내가 호기심이 많고 소녀적인 감성이 남아있어 좋다고 하더라"면서도 "실은 인간성이 괜찮아서다. 내 또래 배우들 지고 연기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나"라며 눙을 쳤다.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는 많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표징이지만 배우로선 '국민엄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다.

중년의 팜므파탈이면 더욱 좋을 듯 싶다. 얼마 전 찍은 패션 월간지 화보에서 '얼멸 폭탄머리' 파마에 진한 스모키 화장으로 변신했는데, 낯선 자신의 모습이 꽤 그럴듯했다고 털어놨다.

또 요즘은 정통 사극도 다시 눈에 들어오고 있다. "TV에선 자주 사극을 경험했지만 스크린에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출연 제의를 고대하고 있다. "전 일을 해야 컨디션이 좋아져요. 쉬고 난 다음날은 몸과 마음이 오히려 찌뿌둥해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주저없이 은퇴하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죠. 훗날 후배들이 '저 선배는 끊임없이 연기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준다면 가장 기분 좋을 듯싶어요."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율리아의 온드레(이율) 디자인/김지원

"송강호·김윤석 소름돋는 연기…난 멀었죠"

김해숙은 '박쥐'와 '도둑들'에서 각각 공연했던 송강호와 김윤석의 연기를 비교해 달라는 우문에 난감한 표정부터 지었다.

그는 "강호씨나 윤석씨는 나보다 후배지만,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기가 막히게 뛰어난 배우들이다. 연기 스타일은 다르지만, 무엇이 됐든지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한다"며 "황정민씨도 그렇고, 보고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다. 나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겸손을 내놓았다.

신승훈 음악 자아찾기 여정 끝

다양한 장르 담은 신보 23일 발표 ··· 루시드폴도 같은 날 6집 내놔

'발라드 황제' 싱어송라이터 신승훈(사진 왼쪽)과 루시드폴(오른쪽)이 23일 동시에 새 앨범을 출시하고 가을 가요계 장악을 노린다.

신승훈은 4년 만의 신보 '그레이트 웨이브'를 발표한다. 2008년 출시한 '라디오 웨이브'와 2009년 '러브 어클락'에 이은 '스리 웨이브즈 오브 언익스펙티드 트위스트'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이번 음반은 신승훈이 6년에 걸쳐 음악적 자아를 찾기 위해 실험해 온 여정을 마무리하는 앨범이다. 앞서 발표한 두 앨범의 장점을 극대화한 곡들로 구성됐다. 발라드는 물론 브리티시 팝, 펑키 디스코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했다.

신승훈의 자작곡과 함께 현재 가요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작곡팀들의 곡도 실렸으며 여러 아티스트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곡 작업에 매진해온 신승훈은 8월 녹음에 돌입해 지난달 말 모든 곡의 녹음을 완료했다. 현재 믹싱과 마스터링 등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음악적인 면은 물론 재킷과 뮤직비디오 영상 등 시각적인 요소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앨범 출시에 맞춰 다음달 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 '2013 더 신승훈 쇼 그레이트 웨이브'를 개최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 합창단, 신승훈 밴드 등 100여 명이 무대에 오르며 7개월간 준비해온 블록버스터급 공연이다.

루시드폴은 6집 '꽃은 말이 없다'를 내놓는다. 2011년 발표한 5집 '아름다운 날들' 이후 2년 만의 정규앨범으로, 전곡을 어쿠스틱 악기로 녹음하고 시적인 노랫말을 더해 담백한 자연미를 살렸다.

앨범 발매를 기념해 다음달 6~17일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공연을 연다. 앨범 특징에 맞게 공연에서도 그 어떤 전자 증폭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어쿠스틱 무대를 선보인다. 루시드폴을 중심으로 네 명의 연주자들이 5인조 앙상블을 이뤄 연주하고 관객들이 무대를 둘러싸고 감상하는 연출을 선보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star bag

현빈과 저축상 받는다

카라 구하라가 현빈과 저축상을 받는다.

이들과 방송인 김혜영, 연기자 권해효, 야구선수 이대호 등은 29일 열릴 제50회 '저축의 날'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다.

주최 측인 금융위원회는 "포상자 모두가 꾸준한 저축으로 귀감이 됐고, 다양한 사회봉사 및 기부 활동으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일본 3개 도시서 팬미팅

연기자 남궁민이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팬미팅을 마련한다.

소속사는 1일 "현지 공식 니굴럽 창단을 기념해 '웰컴 투 드리민 파티(Welcome to DREAMIN PARTY)'란 제목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며 "6일 도쿄 교육회관 히토츠바시홀을 시작으로 8일 오사카 OBP 비즈니스 원형홀과 9일 나카가와 문화소극장에서 차례로 열린다"고 전했다.

현아와 듀오 '트러블메이커'

비스트 장현승(사진 오른쪽)이 현아와 듀오 트러블메이커로 다시 뭉친다.

현아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장현승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로 찍은 사진을 올려 복귀를 예고했다. 이들은 2011년 동명의 타이틀곡을 내세운 미니앨범을 발표해 이듬해 제4회 멜론뮤직어워드 시상식에서 핫트렌드상을 받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다.

'생의 한가운데서' 콘서트

록밴드 K2 출신 보컬리스트 김성면이 19일 마포구 서교동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생의 한가운데서 외치다'란 제목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K2 시절 '사랑과 우정 사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녀의 연인에게'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뮤지컬 '바람아 바람아', '비처럼 음악처럼'의 삽입곡과 신곡 '생의 한가운데서 외치다' 등 선사할 예정이다.

PHOTO

재킷 사이로 안뭉이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복귀를 앞두고 1일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피치 말들에 와투번 것처럼 쉬시 한상을 일으키는 가희는 10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후 아 유'를 선보인다.

▶ 남자들이 이렇게 입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조성준기자 when@

아이유 "국민 여동생 잊어주세요"

'몽의 연애' 티저 파격 시스루룩

아이유가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깨는 파격적인 시스루 패션을 선보였다.

그는 1일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록곡 '을의 연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티저 영상에서 모던한 블랙 가죽 팬츠와 헝클어진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속옷이 훤히 비치는 상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 노래는 아이유가 가사를 쓴 곡으로 밀고 당기는 연애의 긴장감을 갑을 관계로 표현한 재치 있는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아이유가 집시재즈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곡이며, 매혹적인 목소리에 국내 최정상 집시 기타리스트인 박주원의 화려한 연주가 더해져 조화를 이룬다.

아이유는 7일 출시할 정규 3집 '모던 타임즈'에서 집시재즈, 스윙, 보사노바, 라틴팝, 포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유순호기자

아시아 대표가수들 잠실 총집합…9일 페스티벌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잠실벌에 모인다.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9일 오후 7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2PM·엑소·걸스데이(사진)·제국의 아이들·크레용팝 등 국내 아이돌 가수들과 홍콩의 등자기, 인도네시아의 7아이콘스, 필리핀의 M.Y.M.P 등이 나선다.

진행은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2PM의 택연, 엑소의 크리스가 맡는다.

주최 측은 "국내외 음원 소비량과 SNS 데이터 등을 활용해 출연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KBS에서 방송된다.

/조성준기자

반전의 연속 '주군의 태양' 해피엔딩?

소지섭·공효진 로맨스 행방 안갯속…시청자 관심집중

시청률 20%를 넘으며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수목극 '주군의 태양'이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3일 막 내릴 이 드라마는 지난주 방송에서 귀신을 보는 태공실(공효진)이 자신이 과거에 사고로 누워있었던 3년간의 시간을 설명해줄 정체불명의 남자 유진우(이천희)와 떠나기로 결심하고 주중원(소지섭)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모습을 내보내 로맨스의 향방을 놓고 시청자들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유진우의 정체와 태공실과의 관계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유진우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네 영혼은 돌아가지 않았어. 우리는 3년을 같이 있었어"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가장 궁금증을 모으는 부분은 주중원과 태공실이 그동안의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드라마는 주중원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하면 그의 첫사랑 차희주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고 유진우까지 등장하는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

다행히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 관계자는 "유진우가 알고 있는 태공실에 대한 비밀이 16~17회에 걸쳐 방영된다. 반전 스토리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그래도 드라마 분위기상 주중원과 태공실의 로맨스는 반전 없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겠느냐"고 살짝 귀띔했다.

스타 작가 홍자매(홍정은·홍미란)가 각본을 맡은 '주군의 태양'은 독특한 스토리와 캐릭터, 연기자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호흡에 로맨스와 공포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져 첫 회부터 내내 수목극 1위를 유지했다.

진중한 이미지를 벗고 까칠하고 가벼운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소지섭은 '주군앓이'를 일으키며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공효진 역시 개성 있는 캐릭터를 공감 가게 연기해 로맨틱 코미디 퀸의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주제가인 윤미래(T)의 '터치 러브'역시 방영 내내 각종 음원 차트를 장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단발머리 티파니 상큼한걸 소녀시대 티파니가 단발머리로 변신했다. 티파니는 한 패션 월간지의 10월호 화보에서 상큼한 단발머리와 스포티한 의상을 믹스매치한 차림으로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냈다.

▶ 예뻐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 하면 낭패 봅니다 /유순호기자 sh...

제왕의 딸 수백향' 출발 순조

MBC 새 일일사극 '제왕의 딸 수백향'이 지난달 30일 전국 시청률 7.5%(닐슨코리아 집계)로 출발했다.

이 같은 1회 시청률은 전작 '구암 허준'의 첫 회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우·이재룡 등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백제 첩보단의 일원인 공주 설난의 활약상을 그린다.

한지민 이병헌과 한솥밥

한지민이 새 둥지를 틀었다.

이병헌·한효주·고수·진구 등이 몸담고 있는 매니지먼트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한지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플랜맨'을 촬영 중인 한지민은 이번 이적으로 대표작 '올인'에서 공연했던 이병헌·진구와 10년 만에 같은 소속사에서 지내게 됐다.

진태현 "연인 시은씨 매일 보니 좋아"

'내 손을 잡아' 동반출연

공개 커플인 박시은과 진태현이 연인으로 드라마에 동반 출연하는 데 대한 장단점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7일 시작할 MBC 새 아침극 '내 손을 잡아'에서 친모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연인인 민정현(진태현)에게 배신당하는 한연수 역을 연기할 박시은은 1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인 역할을 할 때 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색한 부분이 더 많다"면서도 "그러나 함께 연기하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연수를 배신하는 민정현 역을 맡은 진태현은 "내가 출연을 결정 지은 후 박시은이 캐스팅됐다"면서 "처음엔 함께 출연하는 게 부담됐지만 지금은 매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박시은을 향해 애정을 드러냈다.

1일 열린 MBC 새 아침극 '내 손을 잡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재황·박시은·박고은·진태현(왼쪽부터).

2010년 방송된 SBS '호박꽃 순정'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이번 드라마에서 방영 초반 달콤한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며 박시은은 이재황과, 진태현은 박고은과 사랑을 엮어나가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한재석과 박솔미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관심을 모았던 박시은은 이 자리에서 "결혼 계획이 없다. 작품이 끝날 때까지는 연기만 하기도 바쁠 것 같다"고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탁진현기자

장근석, 팬 1300명과 '뜨거운 밤'

한류스타 장근석이 1300여 팬들과 뜨거운 밤을 보냈다.

장근석은 지난달 29~30일 강원도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장근석 인 스타 애비뉴 2번째 캠프'에 참석했다.

이번 팬미팅은 저녁 만찬과 칵테일 파티, 뮤직토크, 미니콘서트 등 팬들이 장근석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코너들로 구성돼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장근석은 평소 좋아하는 노래들을 선곡해 이와 관련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팬들과 소통했고, 2집 앨범에 수록된 '네이처 보이' '인디언 섬머' 등 5곡을 부르며 신나는 무대를 꾸몄다.

또 칵테일로 축배를 올리고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무대와 이벤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팬 서비스를 선사했다.

한편 장근석은 다음달 방영될 KBS2 '예쁜 남자'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남자 독고마테 역을 맡아 1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탁진현기자

두 천재 레이서 뜨거운 명승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

film review

■ 러시 더 라이벌

제임스 헌트(크리스 헴스워스)와 니키 라우다(다니엘 브륄)는 포뮬러원(F1)의 하부 리그에서부터 치열한 경쟁 관계를 이어온 라이벌이다.

제임스는 여자와 술을 즐기는 플레이보이로 타고난 레이싱 실력을 지닌 천재인 반면, 니키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로 레이싱에만 몰두하는 노력파다.

매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1976년 시즌에서 마침내 운명의 한판 승부를 맞이한다.

9일 개봉될 '러시: 더 라이벌'은 레이싱 역사에 전설의 라이벌로 전해 내려오는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다의 관계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실존 인물과 당시 상황 등을 완벽하게 복원해낸 전기물로 레이싱을 전면에 내세운 스포츠 영화이기도 하다.

아카데미작품 감독상 수상작인 '뷰티풀 마인드'를 비롯해 '신데렐라 맨' '프로스트 vs 닉슨' 등을 연출하며 실존 인물을 다루는 데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론 하워드 감독이 또 한 번 자신의 재능을 과시했다. 전기영화는 지루하거나 뻔하다는 편견을 깨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들의 실제 삶에 빠져들게 한다.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인물의 특징을 군더더기 없이 부각시키면서 각자의 고민과 성공을 향한 열정을 담백하게 전달한다. 오랜 애증의 관계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우정도 훈훈한 공감을 준다.

단선적인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탁월한 연출과 촬영, 편집의 힘이다. 질주하는 레이싱카와 같이 두 인물이 지다온 6년의 시간이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레이싱카에 수십 대의 카메라를 부착해 레이서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상을 스크린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드라이버가 느끼는 진동까지 섬세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했다.

굉음을 뿜어내는 엔진 소리와 함께 목숨을 건 아찔한 레이스가 경기장에서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국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F1이 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각광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싱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았다.

남성 관객이 위험한 승부의 세계와 여성 관객에게 어필할 로맨스까지 골고루 담은 섹시한 스포츠 전기영화다. 청소년 관람불가.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6화 글 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루저' 주상욱 '실장' 양동근

'응징자' 단골캐릭터 바꿔

주상욱과 양동근이 새 영화 '응징자'에서 각자의 단골 캐릭터를 맞바꾼다.

평소 드라마 속 '실장님 전문'으로 익숙한 주상욱은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이 영화의 제작보고회에서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극중 대기업 실장인 창식 역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영화에서도 또 실장님을 연기해야 하느냐'며 매니저 형에게 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루저로 사는 준석 역이란 걸 알고 놀랐다"며 "또 양동근씨가 창식 역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더 놀랐다. 캐스팅이 이 영화의 반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거친 남자 캐릭터로 낯익은 양동근은 "아이가 아내 배 속에 있을 때가 촬영 기간이었다"면서 "욕하는 대사가 많아 집에서 주로 연습했는데 (태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마음이 참 안 좋았다"고 털어놨다.

이 영화는 학교폭력의 피해 후유증으로 힘들게 사는 준석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해자 창식이 20년 후 다시 만나 쫓고 쫓기는 복수를 벌인다는 내용의 액션 스릴러다.

신동엽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31일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when@

주상욱(왼쪽)과 양동근이 제작보고회에서 대립하는 듯한 극중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혁 김태균감독과 재회 영화 '딸기우유' 캐스팅

장혁(사진)과 김태균 감독이 '화산고' 이후 13년 만에 재회한 신작 '딸기우유'(가제)가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체육교사를 짝사랑하는 한 여고생(이도애)의 성장담을 그린다. 장혁은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준기 역을 맡아 기존의 거친 이미지를 벗는다.

지난달 14일 충남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진 첫 촬영은 준기와 비에 젖은 여학생이 대면하는 장면을 담아 이들 사이를 감돌 묘한 감정 기류를 예고했다. /조성준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m anxious to know what your decision is. 결정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at's the matter, Anne? Do you have a problem?
B. Yes. I have a chance to get another job and I don't know what to do.
A. 너는 그 회사에 가기로 결정했지, 그렇지 않니?
B. No, not yet. 이건 복잡한 문제야, Phillip.
A. What about the salary? Would you get more money?
B. Yes, the salary is better.

정답 You've decided to go to that company, haven't you? / This is a complicated problem.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I'm still on the fence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 했어요.

직역하면 저는 아직도 담장 위에 앉아 있어요. 가 되는 이 같은 담장 위에 걸터앉아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확고하게 결심하지 못했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ex A Did you decide to quit smoking?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니?
B Oh, I'm still on the fence.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

to부정사

▶ to부정사란 동사 앞에 to를 붙여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하는 말을 의미한다

명사 역할	~하는 것'의 의미.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형용사 역할	명사를 꾸며준다
부사 역할	목적, 원인, 정도,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 예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I like to play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해 (명사)
2 My mom has some work to do.
엄마는 하실 일이 좀 있어 (형용사)
3 She turned off the light to sleep.
그녀는 자려고 불을 껐어 (목적)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new restaurant on Park Avenue has ______ much excitemen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its executive chef.
(A) marketed (B) equipped
(C) generated (D) received

02 The Produce Growers Association has distributed a pamphlet to area supermarkets that lists fruits and vegetables with the highest ______ of vitamins.
(A) attractions (B) concentrations
(C) beneficiaries (D) commands

01 파크가에 새로 문을 연 식당은 수석 요리사의 세계적인 명성으로 인해 많은 열광을 불러일으켜 왔다
해설 문맥상 '열광을 불러일으켰다'가 자연스러우므로 (C) generated를 써야 한다
어휘 excitement 열광, 흥분 reputation 명성 executive chef 수석 요리사 market 을 시장에 내놓다 equip 을 갖추다 generate 를 발생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정답 (C) generated

02 농산물 재배자 협회는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든 과일과 채소 목록이 있는 팸플릿을 지역 슈퍼마켓들에 배포했다
해설 '비타민 의 최고로 농축된, 함유량'이 적합하므로 (B) concentrations를 쓴다
어휘 produce 농산물 grower 재배자 association 협회 distribute 배포하다, 나눠주다 list 목록을 작성하다 attraction 매력 beneficiary 수혜자 command 명령 지휘
정답 (B) concentration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 하기

사물 및 배경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실내

be hanging on the wall 벽에 걸려 있다
be posted on the board 게시판에 붙어 있다
be placed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be displayed along the wall 벽을 따라 진열되어 있다
be stacked up on the shelf 선반에 쌓여 있다

실외

be crowded with people 사람들로 붐비다
be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The traffic is heavy 차량이 많다
The traffic light is green. 신호등이 파란불이다
Flowers are planted 꽃들이 심어져 있다
The waves are calm[rough].

불황 속 소박한 사치, 명품 커피

유필문의 커피로드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은 면도 없는 것 같다. 고급 위스키와 코냑의 소비 규모나 명품 옷의 소비 또한 만만치 않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고급지의 명품자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음식과 서비스에도 명품이란 단어가 붙곤 한다. 이들 모두 높은 가격으로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명품 커피는 다르지 않을까 한다. 싱글 오리진(single origin)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가격 또한 비싼 커피가 그것들이 아닐까 한다. 게이샤 커피, 90+ 커피, COE 커피에서도 상위 1~2위 커피 등이 그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명품으로 알려진 코나커피, 블루마운틴, 루왁을 포함시켜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무방하리라 본다. 이 모두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들 커피들은 원두 100g에 1만5000원에서 5만원이면 살 수 있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12g 정도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약 8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된다. 한 잔에 2000원에서 6000원이 되는 셈이다. 물론 커피를 내리는 수고는 감내한다는 가정하에서다.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맛본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것일어 분명하지 않은가 싶다. 이정도 가격이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황이 되면 명품의 소비는 줄어든다고 한다. 한 해외 언론에 의하면 고급 커피의 소비는 불황에도 줄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고급 커피 소비는 조금 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입이 줄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써야 하는 명품은 안 되더라도 몇 만원에 즐기는 명품 커피는 불황에도 끄떡없는 명품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 손쉽게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명품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열린 명품'이 되는 것이다.

/커피칼럼니스트·한성백제 대표

(www.gscoffee.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1		7			2	9	4	
			7		8			
					6	7		8
	1						6	
3		8	4					
			9		1			
	2	4	8			3		5
				5			9	

스도쿠 정답

		7		5				9
	2	6					7	
5	8					4		
4		5	8					
	1						6	
					3	7		8
		2					5	1
	7					6	9	
1				6		8		

문제제공=보누스

한국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들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 533-8877 www.saju4000.com

30대 중반에 공무원 공부 잘될까 / 때가 될 때까지 느긋하게 있기를

스핑크스 여자 81년 3월 5일 음력 저녁 6시

Q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20대 초반부터 공무원을 꿈꿔왔었고 여태까지도 공무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공부도 시작했었는데요, 그땐 나이도 어렸고 연애 중이라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의료기술직 의료직 공무원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A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변에 머무는 행운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운세가 피실 때 행운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귀하에게는 좋은 기운이 켜졸고만 있으니 조급해하거나 쫓기지 말고 40세까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숙제 못하고 잔다면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늘 스트레스로 인해 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되듯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늦은 복이 있어 41세 지나면서 호수에 잠긴 달빛과 같은 중심으로 단백이 형성되고 재물도 집선합니다. 따뜻한 (精誠)으로 노력 이외에도 복이 따르니 지금은 현실에 꾸준히 충실하십시오.

안과 질환으로 소극적 삶 답답 / 현실 인정하고 마음 병 조심을

미림이 여자 86년 2월 4일 음력 오전 10시

Q 대학원을 다니던 중 갑자기 특발성 황반변성이란 안과질환으로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다니며 눈에 주사약을 넣고 2~3일은 외출도 삼가야 합니다. 결혼할 생각은 없고 그저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삶의 원동력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신세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A 오행에서 화(火)는 불이다 빛이라 하는데 사주 구조에서 수화미제라 하여 불이 물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 안과질환이 생기고 감회지는 수계, 화재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힘겹게 고생하니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을 피해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를 막거나 경감케 하기도 합니다. 사주학 공부를 취미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지 말지를 천천히 결정하십시오. 마음의 병까지 더해질 수 있는데 극복해나가도록 힘쓰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일(음력 8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0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라. 72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84년생 친한 루프탑 일어 생기면 친석이 유리~

소: 49년생 딱한 처지의 벗을 외면 마라. 61년생 변화에 급트면 잃는 게 많다. 73년생 걱정됐던 일이 잘 풀려서 사기 충전~ 85년생 어설픈 계획은 퇴짜 맞는다.

호랑이: 50년생 큰 목소리는 손해를 안긴다. 62년생 답답할 땐 밖으로 나가라. 74년생 작은 성과가 성공의 날개 달아준다. 86년생 바람으로 끌어질 친구를 붙잡아줘라.

토끼: 51년생 예상은 빗나가니 대비하라. 63년생 달콤한 말 뒤엔 노림수가 있다. 75년생 무뇌만 우군인 사람을 경계할 것. 87년생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용: 52년생 병원에 가는 일을 귀찮이 마라. 64년생 습관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니. 76년생 마음을 비우면 의외의 결과 얻을 수도. 88년생 고전하니 궂을 일도 많다.

뱀: 53년생 생각 바꾸면 새 길이 열린다. 65년생 확신에 찬 일이라도 신중할 것. 77년생 어려운 중에 도약할 기회도 생긴다. 89년생 인연의 의중 파악하는 데 신경 써라.

말: 42년생 우울할 땐 가볍게 움직여라. 54년생 속마음과 행동이 달라 혼란스럽다. 66년생 눈앞 이익보단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 78년생 계속 두드리면 협상점도 열린다.

양: 43년생 권위의식은 왕따 자초한다. 55년생 정보를 많이 새기면 화끈하게 먼저 하라. 67년생 칭찬이 쏟아질 때 겸손해야 한다. 79년생 자청 전할 기회는 놓치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묵은 쌀 일이 생기니 대비하라. 56년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뜻은 이룬다. 68년생 명이가 놀라갈 일 생기니 기대하라. 80년생 과감해야 얻는 게 많다.

닭: 45년생 생각이 많으면 전진 못 한다. 57년생 듣고 싶으면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것. 69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니. 81년생 소개팅 있으나 출근복 신경 써라.

개: 46년생 식중독으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생각대로 일은 풀려나간다. 70년생 부담스러운 부탁받고 고민의 하루~ 82년생 마음을 비우면 생각도 못 한 행운이 찾아온다.

돼지: 47년생 건강 회복되니 판미유이 생긴다. 59년생 자녀 일에 지나친 간섭은 금물~ 71년생 친구의 일로 바쁜 하루 보낸니. 83년생 가난해도 꿈은 재밌지 말라.

삼성 최초 리그 3연패 매직넘버 '1'

2·3위 LG·넥센은 패… 롯데 김준태 끝내기 안타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직행을 노리는 삼성이 매직 넘버를 1로 줄였다.

삼성은 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와의 경기에서 선발 릭 밴덴헐크의 호투에 힘입어 8-2로 승리했다.

74승50패2무를 기록한 1위 삼성은 이날 패한 2위 LG에는 2.5게임, 3위 넥센에 3게임차로 앞서며 정규리그 우승의 매직 넘버 1을 남겨뒀다. 남은 2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거나 2위 LG와 3위 넥센이 1패씩을 당하면 1위가 확정된다.

정규리그 3연패는 국내 프로야구에서 최초의 기록이다.

삼성 배영섭은 5타수 4안타 3득점으로 이날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밴덴헐크는 6이닝 동안 삼진 8개 3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리그 1위에 도전하던 LG와 넥센은 롯데와 NC에게 발목이 잡혔다.

5위 롯데는 사직 홈경기에서 연장 10회말 김준태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LG를 4-3으로 물리치고 5연승을 기록했다. 경남고를 졸업한 신인 김준태는 데뷔 첫 경기에서 첫 안타를 끝내기로 장식했다.

롯데 손아섭은 이날 4타수 2안타로 타율 0.344를 기록해 3타수 1안타에 그친 LG 이병규(0.343)를 제치고 타율 1위로 나섰다.

창원 마산 구장에서는 NC가 신인왕 후보 이재학과 나성범의 투타 활약에 힘입어 갈 길 바쁜 넥센을 6-2로 꺾었다.

프로야구 전적

■대전

삼성	010	042	010	8
한화	020	000	000	2

■사직

LG	010	000	200	0	3
롯데	000	101	010	1	4

■마산

넥센	020	000	000	2
NC	000	130	20X	6

NC는 51승71패로 KIA와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선발 이재학은 7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10승 고지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파도 좋아 1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 경기에서 롯데 김준태가 10회말 끝내기 안타를 때린 뒤 동료들에게 과격한 축하를 받고 있다. 김준태는 데뷔 첫 안타를 끝내기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이적생 루카쿠 "원맨쇼 봤지?" 에버튼의 로멜루 루카쿠(가운데)가 1일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3~2014 시즌 5라운드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 사이를 돌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에버튼은 2골 1도움을 기록한 로멜루의 맹활약에 힘입어 뉴캐슬을 3-2로 눌렀다. 루카쿠는 올 시즌 첼시에서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했다. /AP·뉴시스

<PGA 연장전 상대>

최경주 톰스와 나란히 선다

CJ 골프대회서 재격돌

최경주(43·SK텔레콤·사진 오른쪽)가 2011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어스챔피언십 연장전 상대였던 데이비드 톰스(46·미국)와 국내 대회에서 다시 맞붙는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최경주 CJ인비테이셔널 주최 측은 톰스가 10~13일 경기 여주의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출전한다고 1일 밝혔다.

PGA 투어 통산 13승을 자랑하는 베테랑 톰스는 2년 전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챔피언십 마지막 날 연장전에서 최경주

와 격돌해 아깝게 무릎을 꿇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올 시즌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류현우(32)를 비롯해 이동환(26), 김시우(18) 등이 출전한다. /조성운기자

"다저스 커쇼·그레인키 원투펀치 포스트시즌 최강"

류현진(26)이 제3선발로 점쳐지고 있는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사진 왼쪽)와 잭 그레인키(오른쪽)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할 '원투 펀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 CBS 스포츠는 1일 포스트 시즌 1·2선발의 순위를 매기는 기사에서 "커쇼와 그레인키가 원투 펀치로 최강이란 사실에 이견이 없을 정도"라며 방어율과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WAR는 해당 선수가 리그 보통 수준의 선수보다 얼마나 더 많이 승리에 기여했는지를 객관화한 지표다.

커쇼는 방어율 1.83에 WAR 8.0을, 그레인키는 2.63에 4.0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추신수(31)의 신시내티 레즈 마운드를 책임지는 맷 레이토스와 조니 쿠에토는 6위에 올랐다. 레이토스는 3.16과 3.8을, 쿠에토는 2.82와 1.4를 각각 기록했다.

막강한 원투 펀치와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류현진의 능력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웹진 블리처리포트는 이날 다저스 선수 각각에 대해 평점을 매기면서 류현진에게 'A'를 줬다. 류현진보다 높은 점수(A+)를 받은 선수는 커쇼·그레인키·야시엘 푸이그·후안 우리베 등 4명이다.

블리처리포트는 "류현진이 고작 3390만 달러에 14승을 올리면서 다저스는 일종의 쇼핑을 했음을 증명했다"며 "류현진은 시즌 내내 꾸준했고 동료와의 사이도 좋았다"고 적응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성운기자 when@

기보배 터키 세계선수권 '금빛 스타트'

예선 1376점 1위 차지

지난해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챔피언 기보배(광주광역시청·사진)가 201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다.

기보배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파필론 경기장에서 열린 예선 라운드에서 4개 거리 144발 합계 1376점을 쏘아 대만의 탄야팅(1371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팀 동료 장혜진(LH)과 윤옥희(예천군청)는 1369점과 1361점으로 각각 3~5위에 자리해, 한국 궁사 모두가 1~2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36강에 직행했다.

단체전 예선 라운드에서도 세 선수 합산 4106점으로 1위에 올랐다.